

고령친화 정주모델 구축 본격화

남원시, 전북 특화사업 ‘고령자 건강 치유마을 조성사업’ 최종 대상지 선정

남원시는 올해 8월, 전북특별자치도가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고령자 건강 치유마을 조성사업인 불루존 프로젝트의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남원형 고령친화 정주모델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총사업비 2,044억 원 규모의 전북도 특화사업으로, 주거·의료·볼보·여가가 통합된 고령친화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고령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정주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남원시는 정보도와 공동으로 고령자 복지주택, 실버스테이, 의료요양시설, 체육문화시설, 건강지원시설 등 핵심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관련 제도 정비 및 국가 공모 연계 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는 남원시 용

정동 282번지 일원으로, 교통산 자락의 풍부한 자연환경과 KTX·달빛철도 남원역, 17번 국도, 고속도로 IC 등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어 정주 여건 개선에 최적화된 입지를 자랑한다. 또한 주요 의료기관과 시내 중심 상권이 인접해 있어, 의료·복지 서비스 연계형 고령친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최적의 기반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선정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남원시의 치밀한 분석과 전략적 대응 노력이 맺은 결실로, 남원시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주요 시설 배치계획을 포함한 마스터플랜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신속히 착수하여, 체계적인 구체적인 실행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는

‘고령자 건강 치유마을 조성 협력 TF팀’을 공식 가동하고,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방향과 조성모델 설계를 위한 공동 추진체계에 돌입, 지난 10월 30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하여 남원형 고령자 건강 치유마을 조성 전략과 국가 공모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남원시는 은퇴 세대 및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건설·문화·관광 등 연관 산업 전반에서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문화·농업·예술이 융합된 고령자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과 건강증진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치유로 피어나는 삶, 머물고 싶은 남원’이라는 도시 비전을 실현할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순창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감시원배치·24시간 상황근무 체계 운영

순창군이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

군은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등 100명을 읍·면 전역에 배치해 산불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군청 산림공원을 중심으로 소방서, 경찰서, 의용소방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에 나선다.

주요 추진 내용은 △24시간 상황근무 체계 운영 △산불예방진화대·감시원 현장 배치 △취약지역 순찰 및 감시 강화 △입산자 실화·소각산불 예방 계도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 체계 가동 등이다.

특히 군은 산불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입산자 대상

산불 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산불 발생 시에는 신고 즉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출동해 초동 진화에 나서며, 대형 산불로 확산될 경우 헬기 등 공역 진화자원을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앞서 순창군은 지난 4월 국가 재난급 대형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전문 진화대’를 발족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100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 진화대는 신속한 초동 대응과 잔불 정리, 후속 조치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 진화장비를 갖추고 운영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최근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소방서,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11월 25일까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5년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 작품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들에게 화재 안전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학교 및 가정에서 불조심을 실천수행하는 분위기로 조성하고자 실시하며, 공모전 주제는 화재예방의 필요성 등 안전의식 함양 관련, 도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4월지에 손그림 포스터를 그려 1인 1작품을 접수하면 된다.

참가는 남원 관내 초등학교 및 12세 이하 어린이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서를 남원소방서 대응예방과(063-630-8244)로 제출하면 되고, 공모된 작품은 11월 말 남원소방서 예산 심사를 거쳐 최우수작을 선정해 전라북도 대회에 출품될 예정이다.

안동춘 대응예방과장은 “이번 공모전이 어린이들에게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초등학교들이 참여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표현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농기센터, 발효식품 실용 요리 교육 실시

임실군 농업기술센터가 교육수강 희망자 24명을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발효식품 실용 요리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10월 1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실시되며, 지역 농산물 활용 역량을 강화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발효식품의 특성 이해 및 활용 방법에 대한 창의력을 증진하는 실용적인 조리 실습 교육으로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된장, 고추장, 간장, 치즈, 식초, 막걸리에 대한 발효식품 이론 수업 △된장소스 두부 새우찜 △약고추장 △발효간장 육포 △고구마 치즈 샐러드 등 13종의 실습 교육이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음식교육연구소의 김상경 소장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임실=진흥영 기자

남원시-일본 히오키시, 공예문화 민간교류

남원시와 일본 가고시마현 히오키시는 도자기로 맺어온 깊은 역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다양한 문화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정유재란 당시 일본으로 건너간 남원 출신 도공 심당길의 후손인 심수관가(沈壽官家)는 400여 년 동안 일본 전통 사쓰마 도자기의 맥을 잇고 있는 명문 가문이다.

1998년 남원에서 열린 ‘심수관 400년 귀향제’는 끊어졌던 두 도시의 교류가 다시 이어지는 전환점으로, 이후 2008년 문화교류 우호관계 협약을 체결하



였으며, 2011년에는 일본 심수관가 12~15대의 작품 31점이 남원에서 기증되고, 2023년 8월에는 양 도시가 도자문화 교류와 상생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며, 도자문화 공동 발전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

올해 11월, 남원시는 처음으로 민간공예인 교류단을 꾸려 일본 히오키시 미야마즈대프토크워크에 참여, 이번 교류는 남원과 히오키가 400여 년 도자 인연으로 이어온 깊은 문화적 우정을 바탕으로, 도자와 공예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 민간교류의 폭을 넓히기 위한 뜻깊은 자리다.

교류단은 도예·꽃실목공예·전통음식 등 다양한 분야의 장인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1월 3일부터 6일까지(3박 4일) 가고시마현 히오키시 일원에서 열리는 축제 기간 동안 현지 장인들과 교류하고 지역 문화를 체험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이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진안군, 순창군과 손을 맞잡았다.

섬진강권역 관광 활성화 ‘한뜻’

임실-진안-순창군, 업무협약... 통합관광벨트 조성 시동

임실군이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진안군, 순창군을 비롯해 전주시와 손을 맞잡았다.

군은 지난 4일, 국립진안고원산립치유원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섬진강권역 관광 활성화 포럼’에서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해 전춘성 진안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김현환 前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전용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등 관계자들과 지역주민 등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섬진강권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특별자치도 섬진강권역 내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본격 구축하고, 지역 관광자원의 공동 활용 및 상생 발전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3개 군은 △관광자원 공동 발굴 및 기획 콘텐츠 개발 △관광역대위 관광인프라 개선 △홍보·마케팅 협력 등 지속가능한 관광발전 기반 마련과 더불어 공모사업 공동대응, 「섬진강권 관광협의체(가칭)」 구성 등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중앙부처 공모사업 참여 시 공동 대응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자연·생태·레저·치유·문화 체험자원을 연계한 통합 관광 루트와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해 3개 군을 하나의 관광벨트로 묶는 종합 관광전략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임실=진흥영 기자

국립임실호국원,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일 맞아 다양한 행사 개최

국기보훈부 국립임실호국원(원장 김민화)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일을 맞아 유엔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호국원 전 직원은 6·25전쟁에서 전사한 유엔전몰장병을 추모하기 위해 ‘부산을 향하여(Turn Toward Busan)’ 캠페인에 동참하여 ‘1분간 묵념(Moment to Remember)’을 실시한다.

또한 오는 11일까지는 6·25전쟁에 참전한 군 부대의 이야기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22개 유엔참전국의 활동상을 조망하는 특별기획전이 제1·2충령당에서 열린다. /임실=진흥영 기자

남원농기센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운영

남원시 농업기술센터가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들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총 22가구 규모의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운영에 적극 나섰다.

이는 귀농귀촌인의 초기 주거 부담을 해소하고, 남원에서의 새 삶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시설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일정 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하며, 자신에게 맞는 정착 지역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이를 통해 이후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주거 문제를 완화하고, 정착 과정에서의 위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남원시는 이 같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힘입어 연평균 1,000명 이상 귀

촌한 귀농귀촌인 유입을 보이고 있어, 실제로 임시거주시설 입주민의 남원시 농촌지역 정착률은 60% 이상으로 나타나, 남원시의 활력 증진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현재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직접 운영 시설 14가구와 각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시설 8가구를 포함하여 총 22가구의 임시거주시설을 운영 중이며, 다양한 필요에 맞춰 세 가지 유형의 임시거주시설을 제공한다.

입주자 선정은 신청서를 토대로 그 린대로 귀농귀촌 홈페이지 및 남원누리시민 가입 여부, 신청 연령, 귀농 교육 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이루어진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